

자주의 철리, 민족의 넋을 새겨주시어

뜨거운 동포애를 가지고 자기의 부모형제와 같이 대해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주제36(1947)년 3월 5일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서기로부터 일본에서 생활하던 재일동포 1만여명이 3월 9일 부터 귀국한다는 보고를 받으셨다.

이후에 일본에 있는 동포들의 귀국열의는 형언할수 없었다. 귀국을 희망하여 일본의 항구들에 몰릴듯이 모여드는 동포들이 하루에도 5000~1만여명에 달하였고 날이 갈수록 그 수는 무려 10만여명을 훨씬 넘었다.

이 감행하였다. 일본반동들의 이러한 귀국 방해책동으로 하여 적지 않은 동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폭배로 귀국하다가 풍랑을 만나 희생되었으며 항구들에 머물러있는 동포들속에서도 질병에 걸려 그처럼 그리던 고향땅을 다시 밟아 보지도 못한채 눈을 감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서기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재일동포들생각으로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으면 그리도 절절하게 말씀하시라 하는 생각으로 가슴이 뜨겁게 젖어들었다.

이하면서 분투해야 할 동지로 믿고 따랐어야 하며 조그맣고 불면이 없도록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셨습니다.

민족의 단합과 번영을 위한 길에서

민족을 위한 길에

삶을 바친 목사 (1)

다. 때는 겨레의 머리위에 일제의 채찍질이 날로 가혹하게 들쭉거리고 있었고 인원과 분노가 6.10만세시위항성으로 터져오르기 직전인 1926년 5월이었다.

되고 사대(《오물》들이 범람하는 곳이었다. 이승만의 사대매국정치가 레 거리를 방황하는 실업자대중, 교사리같은 손으로 비냥하는 어린것들, 그들의 비참한 처지는 선생의 눈을 아프게 찔렀다.



홍동근 목사

남조선과 해외의 명망있는 애국인사들가운데는 재미동포전국연합회, 범민련 아메리카주본부 교민이었던 홍동근 선생도 있었다.

그런 까닭에 압록강 건너편에서 들려오는 일제를 때려부시는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가 그들의 가슴을 흥분으로 팍 채워 주었다.

불안정을 조성하는 위협인물이라는 딱지가 붙었다. 어쩔수없이 선생은 일본망으로 피신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역의 가혹한 환경속에서도

재일동포들이 자기에 대한 탄압과 차별행위가 항시적으로 존재하는 가혹한 환경속에서도 민족의 넋을 뜻없이 지켜가고 있다.

후대들의 밝은 미래를 위해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청상회)의 주최하에 해마다 진행되는 《우리 민족연단》은 새세대 동포상공인들의 애국열의를 분출시키는 주요제기이다.

연 용이이저조선초중급학교 교육회와 아버지회, 어머니회 성원들이 망라되어있다. 한사람의 백결음보다 백사람의 한결음, 열결음이 더 중요하다.

민족교육만 허물면 총련을 말할할수 있다는 율출한 라산필에 일본반동들은 조선학교들을 압박하는 각종 부당한 차별행위를 일삼고있다.

500 번째 《화요행동》

관강히 맞서싸움으로써 이역땅에서 조선민족의 불굴의 기개를 힘있게 과시한 투쟁이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강한 투쟁정신은 오늘날 동포들의 가슴마다에 력력히 살아있다.



500 번째 《화요행동》

지배와 굴종, 범죄의 70년력사는 감출수 없다

자유와 권리를 짓밟은 각종 《군정법령》의 조작

남조선을 강점한 미국은 식민지과소통체제수립을 위해 인민들의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짓밟는 각종 악법들을 만들어냈다.

《정당등록제》는 민주주의적인 정당, 사회단체와 그 성원들을 가혹하게 탄압처형하는데 초점을 둔 악법이었다. 당시 남조선신문들이 《정당등록제》와 관련하여 《력사상 가장 잔혹한 법령》이며 《상식을 벗어나는 처사》라고 규탄한것은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다.

미국은 남조선에서 저들을 반대하는 정치활동뿐 아니라 전일전미파와 민족연역자를 반대하는 행동까지도 모두 《범죄》로 규정하였다.

피에 주린 살인마의 적멸사 광기 전악

미국은 남조선에서 진보적인인들을 탄압하기 위해 1946년 5월 《군정법령》 88호 《신문 및 기타 정기간행물허가에 관한 건》을 공포하였다.

정년 미제야말로 피에 주린 회색의 살인마이고 극악한 전쟁광신자, 침략자이다. 3년간의 조선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웠다.



파괴된 원산시의 일부



파괴된 국립예술극장



폭격으로 폐허가 된 평양시의 일부



《군정법령》 88호를 반대하여 시위를 벌이는 남조선 각계 인민들(1946년 5월)

은 인간의 가족을 쓴 양기들의 야수성과 살인마적기질이다. 미국은 지난 조선전쟁시기 조선민족을 멸살시키고 강도를 황폐화시키기 위해 공화